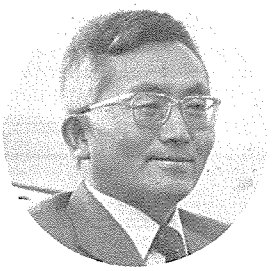
牛痘法을 처음 전파한
池 錫 永

近代醫學의 도입자며 開化運動의 선구자



朴 星 來
〈韓國외국어大교수 · 科學史〉

이제는 거의 마마 또는 天然痘를 앓는 사람이 없다. 지구상에서 천연두는 사라져버린 과거의 전염병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불과 1세기 전에는 이 질병은 누구나 사람이면 한번 앓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최근 1세기 동안 우리나라에도 우두가 실시되면서 천연두는 사라지기에 이른 것이다.

牛痘法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한 사람은 조선 말기의 지식인 池錫永(1855－1935)이었다. 호를 松村, 자를 公胤이라 했던 그는 中人 집안에서 태어나 朴泳孝등 개화파 인사들과 사귀면서 우리의 근세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특히 그는 1879년 가을 우리나라에 牛痘法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처음 우두법을 알아낸 것은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 젠너였다. 池錫永이 우리나라에 우두법을 받아오기 거의 1세기 앞선 1978년의 일이었다. 천연두 비슷한 두드러기는 소와 말에도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병에 걸린 젖소에게서 젖을 짜는 여자들의 손에도 비슷한 두드러기가 돋아나는 수가 있다. 이상하게도 소의 마마, 즉 牛痘를 옮겨 받은 우유짜는 부인들은 천연두를 앓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에 착상한 젠너는 牛痘를 사람에게 일부러 일으켜 주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음을 증명해 냈고, 그것은 곧 전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유럽에서는 우두가 나오기 직전 1세기 동안에만도 모두 6,000만명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다. 요즘은 「곰보」란 말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지만, 18세기까지는 얼굴이 얽지 않은 사람이 드물 지경이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 와싱톤도 얼굴에 천연두 자욱을 갖고 있었고, 〈三國遺事〉의 處容에 대한 설화는 바로 천연두 귀신 즉 疫神에 대한 이야기였다.

젠너의 牛痘法이 금방 전세계에 퍼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나라에도 牛痘法은 池錫永이 그것을 들여오기 반세기 이상 앞서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1824년 쯤에 이미 실학자 丁若鏞과 朴齊家는 淸을 통해 우두법을 배워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丁若鏞은 抱川의 李

鍾仁이라는 의사가 처음 우두를 실시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마치 그 증거라도 되려는 듯 丁若鏞의 저서 〈麻科會通〉에는 1828년 중국에서 나온 피어슨이란 서양 의사의 牛痘法이 간단히 소개돼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丁若鏞 자신이 1835년경 우두를 시행한 것 같은 증거도 있다. 그러나 牛痘法은 1830년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일단 사라져 갔다. 鎖國의 빗장이 굳게 잠겨있었을 뿐 아니라 丁若鏞 같은 학자들은 천주교 탄압의 기세 때문에 그늘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결국 牛痘法은 반세기를 기다려 池錫永의 노력에 의해 다시 수입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1876년 開國과 함께 일본에 파견되었던 修信使 金綺秀의 수행원 가운데는 朴永善이 있었다. 그가 일본의 어느 의사에게서 牛痘法을 대강 얻어 듣고 또 일본인이 지은 〈種痘龜鑑〉이란 책을 갖고 돌아와 池錫永에게 넘겨 주었다.

池錫永은 이렇게 책을 통해 牛痘法을 알게되었고 여기에 큰 관심을 갖게되어 1879년 가을 釜山에 와 있던 日本인 의사를 찾아가 牛痘法을 실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牛痘法을 배운 池錫永은 1879년 겨울 고향 忠州에서 처음으로 40여명에게 牛痘를 놓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우두가 처음 실시된 것이었다.

그는 곧 서울로 돌아와서도 우두를 실시했으나 釜山의 日人 병원에서 얻은 약(痘苗) 만으로는 너무 부족했다. 또 우두기술을 더 익힐 필요성도 있었으며 새로운 文明에 대해 알고 싶은 욕망도 강했다. 제2차 修信使 金弘集을 따라 그는 1880년 日本에 건너갔고 거기서 牛痘에 관한 기술을 더 배우고 책을 구해 가지고 귀국했다. 마침 서양식 文明開化에 박차를 가하고 있

1879년 겨울 고향인 忠州에서 처음으로 40여명에게 牛痘를 놓아주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牛痘法이 정식으로 실시된 최초의 사실이었다.

그의 우두 보급 노력은 효과를 내기 시작, 1882년 9월 全州에 牛痘局이 세워졌고 곧이어 公州에도 우두국이 생겨나 온 국민이 우두접종을 받기 시작했다.

던 日本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池錫永의 우두 보급 노력은 곧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1882년 9월 朴永孝의 형 朴泳敎의 청으로 全州에 牛痘局이 세워졌고, 곧 이어 다음해 여름에는 公州에도 우두국이 생겨나 온 국민이 우두접종을 받기 시작하자 그는 좀더 깊이 있는 소개서의 필요성을 느껴 1885년 〈牛痘新說〉을 펴냈다. 이 때쯤에는 이미 淸을 통해 우두를 배워온 몇몇 선각자들은 국내에서 우두를 보급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우두는 전국에 번져가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우두 보급성공은 뜻밖의 소문을 불러 일으켰다. 池錫永과 그의 형 池運永은 우두의 보급을 핑계로 나라를 팔아 넘기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비난이 관리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다.

1884년의 甲申政變이 실패로 끝난 뒤 金玉均, 朴泳孝 등이 일본에 망명하고 있었던 1887년경에 퍼진 소문이었다. 開化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池錫永은 金玉均등 일파와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좀 이상한 사실은 이런 비난이 일기 바로 1년전에 그의 형 池運永은 당시 軍務衙門의 主事로서 特差渡海捕賊使라는 직함을 몰래 받아 金玉均을 암살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고 역사에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金玉均에 동조적인 기록에 의하면 金玉均의 동지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池運永의 계획을 계교로 미리 확인한 다음에 일본 경찰에 이를 알려 池運永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것이다.

여하튼 1886년에 金玉均을 암살하러 갔던 池運永이 바로 그 다음 해에는 金玉均의 일당이라 비난을 받았다니 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

초 池錫永이 개화파의 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한 만큼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887년의 소문 때문에 결국 池씨 형제는 벼슬자리를 떠났다. 池錫永은 이 때 全羅道 康津縣 薪智島로 유배를 갔고 1891년에야 유배에서 해방되었다. 1894년 甲午改革으로 그의 활동은 다시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가 日本에 갈때의 修信使였던 金弘集이 수상을 맡게 되면서 그는 그 아래에서 刑曹參議, 東萊府使, 中樞院 二等次官을 지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규칙이 제정된 것은 1895년의 일이다. 처음으로 콜레라의 소독과 예방에 대해 규칙이 정해졌고, 우두에 대한 규칙이 발표된 것이다. 그후 전염병의 예방규칙은 다른 전염병에 까지 확대되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의학행정 제도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池錫永의 숨은 노력이 컸던 것이다.

池錫永은 또 근대의학의 수용을 위해서는 의학교의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1899년 우리나라의 첫 醫學校가 설립됐으며 초대교장에 池錫永이 취임했다. 이 학교에서는 주로 일본인 강사를 초빙해다가 일본 책을 번역한 교재로 학생을 교육했던 것 같다. 이 醫學校의 첫 졸업생은 19명, 1903년에 졸업하여 한국의 첫 근대의학교육을 받은 의사가 되었다.

근대적인 의학교육이 이 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1884년 직후부터였다. 1884년 甲申政變으로 부상한 실력자 閔泳翊을 치료하여 궁중의 신임을 받게된 미국의 선교사 겸 의사 호레이스·알렌이 廣惠院이란 근대식 병원을 시작하고, 거기서 한국인에게 의학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름을 濟衆院으로 바꾼 이 병원에서의 의학교육

池錫永은 近代醫學의 수용을 위해 醫學校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1899년 첫 醫學校가 설립되어 初代校長에 취임했다.
첫 졸업생은 1903년 19명이었다.

그가 의학교육에 남긴 공로를 인정하는 뜻에서 高宗은 勳五等·八卦章을 하사했고, 1908년과 1910년에는 太極章과 八卦章이 주어졌다.

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여기서 정식교육을 실시하여 첫 졸업생 7명을 낸 것은 1908년의 일이었다. 池錫永의 醫學校 졸업생 보다 5년 뒤에 졸업생이 배출된 것이다.

그가 우리의 초기 의학교육에 남긴 공로는 1902년부터 이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 해에 高宗은 그의 우두 보급공로를 인정하는 뜻에서 勳五等에다가 八卦章을 훈장으로 하사했고, 1908년과 1910년에도 당시 大韓醫院 學監이던 池錫永에게 太極章과 八卦章이 주어졌다.

池錫永의 가장 뚜렷한 공헌이 牛痘의 시작과 보급, 그리고 醫學교육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는 開化운동의 기수로서도 기억될 만하며, 또 한글의 연구에도 일가견을 이룬 학자였다. 1882년에 올린 그의 上疏文은 지금 많은 역사가들이 인용하는 글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 그는 開化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개화를 위한 청년들의 훈련원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세계정세와 외국의 과학기술에 관한 책을 모아 젊은이들을 가르치려는 뜻이었다.

獨立協會 회원으로도 활약했고, 周時經과 함께 한글 가로쓰기를 처음 제창했던 池錫永이었다. 그는 한문만으로는 開化가 느릴 수 밖에 없다며 한글의 사용을 주장했고, 1909년에는 〈言文〉이라는 한글 文法책을 내기도 했다. 처음으로 가로쓰기로 낸 우리 문법서였다.

그는 開化를 위해 모든 것을 찬성했지만 양력을 주로 사용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양력·음력의 사용은 나라의 富强과 상관없는 일이므로 우리의 것을 지켜 음력을 주로 쓰고 양력을 그 밑에 적어 넣어 두면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한국 근대의학의 도입자이며 開化운동의 선구자였던 池錫永은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보수적 경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